

1927

SOONG SILL WHALL CHUN

昭和二年十二月十三日印刷
昭和二年十二月十六日發行

特別號

崇實活泉

崇實學生會發行

第六號

하 면 된 다

余는過去十有餘年間 屢次 平壤을往訪할機會가잇
 슨것을가장자랑스림게알고있다。그런데特히去月中
 修學旅行으로가서 가장드々한好感을잇었다。即 洋
 襪工場과 고무工場을視察한것이다。時間의 不許로
 多數한工場을 볼수업슨것은遺憾이나 豹一斑을보고
 全豹를알수잇습과갓치 一二處만볼지라도 推測할수
 잇고 所聞한바에依하여思하면 朝鮮人으로서工場經
 營이 이만큼發達된곳은 他에別로 得見치 못할것이
 다。設備金十萬圓以上の고무工場(朝鮮人의經營만)
 이八個所로 洋襪工場이百餘處라한다。그런데 某고
 무工場(余의實見한)에는 技師로브러 職工外지二百
 五十人餘의一團이 온종朝鮮人이오 職工中半數가基
 督信者로 每日曜마다 依規休業한다하니 여커서또
 基督敎의勢力이 적지아니함을 볼수있다。日本人이
 平壤을指하여 朝鮮의大阪이라고稱함은 勿論商工業
 의都市라함이나 그러나一邊으로보면 또한宗教의都

金 昶 濟 先生

市라고할만하다。或者는平壤은 思想方面으로서는
 히落後되었다고말한다。그點에잇서余는余로言雖
 자하지는아니한다。그러나다시생각하면實力을伸하
 지아니한思想의先進은 다만浮虛輕薄의風을馴致할
 뿐이다。今日我京城社會를보면 此類에 不別한것이
 다。京城에來學하는男女靑年들을보아도 實로 得不
 補失이다。余는平壤의勤實하고 壯健하여보이는學
 生들을對할時에 무엇보다도 든々하게밋엄직하게快
 感을맛게된다。아!箕城靑年이여! 半萬年の 歷史
 와 錦繡江山을背景삼고 商工業의實力과基督敎의精
 神으로 日就月將 웃적／＼자라기를 祝福한다。「뒤
 슬너!가출한後에 비로소몬의霧가 외섯다」한다。
 藝術이自然을模倣하는것이아니라 自然은藝術을模
 倣한다하나니 이意味로보아서 平壤에는아직牧丹峰
 大同江이出現치아니하였다고할것이다。다시말하면諸
 君中에서 어서뒤슬너!가出現하여야할것이다。楊萬

春、乙支文德의 歷史가 諸君의 傳記가 되어야 하겠고
 무리와 무리가 諸君中에서 出現하여야 基督教가 비로
 소 諸君의 宗教가 되겠다。章臺峴、南山禮拜堂이 아모
 리 宏壯할지라도 아직은 諸君의 것이 아니다。崇實、光
 威이 참으로 諸君의 所有가 되려면 諸君中에서 新島襄
 이 出現하여야 하겠고 平壤이 果然 朝鮮의 大阪——아
 니 朝鮮人의 大阪이 되게 하려면 諸君中에서 반드시 大
 實業家 大科學者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아 諸君의 頭上에는 飛行機의 푸르멜나 가을고 諸君
 에 眼前에는 大同江上으로 電車가 달아난다。三十年
 前에 누가 夢想이나 하였는가? 諸君의 父祖가 아직 팔
 술을 압해서 집석이 상고 鳳伊金先達이 약이로 솟이 필
 세 밑서 玄武門에 彈丸이 떨어지고 諸君의 叔伯이 아직
 主事 恭奉과 常議有司 差帖을 競買하노라고 無我夢中
 일시에 벌서 京義線이 通하고 旅順、奉天이 陷落되었
 다。이리하여 먹고자고 지집가고 장가가고 愁心歌
 불오는 동안에 監司는 觀察使、道長官、知事로 變하였
 다。팔술불은 電燈으로, 집석이는 고구려인으로, 그러
 케에 물에서 잇어쓰압후도 인제는 도회우회, 나뉘오
 리로 밧구지하니 치못할 지경에 至하였다。이것이 부

는 原因인가? 無他라 남은아는대 나는모르고 남은
 하는대 나는아니한새문이다。近來우리에게 通有한
 惡言은 「할수업다」라는一句言이다。「할수업다」고
 생각하는者에는 참으로 할수업다。이것이 마치소를
 타고가던農夫가 途中에서 意外暴風雨를 맞아서그랏
 던牛가 고만베락을마치죽으니사애쓰나도죽엇고나
 하고서 길바닥에누어서 도모지 일어나볼생각도아니
 하였다는이약이와갓다。우리가갓던소가죽엇든지
 우리갓던배가깨여젓술지라도내가아직죽지아니한
 以上、最後의勞力으로最善을다하여볼것이다。「舜
 何人、余何人、有爲者亦若是」라는氣概를가지고하
 여볼것이다。愚公이山을移하고 蟻螻가城을崩한다
 합은그대지珍奇한事가아니다。萬事에다「하면된다」
 고밋고나아가면아니될일이업는것이다。今後我等
 은 모든것을다革新하고改造하여야될것이다。그런
 대第一몬지「할수업다」는말을「하면된다」로改革
 하자。諸君의前에 明々白々한實証이잇지아니한가
 재洋機、고구工場을보라。하나씩되였다。아니하였
 더면그것조차업젓을것이다。平壤에는二萬餘의信者
 가갓지아니한가。全人口의四分之一을占한信者數는

能히 全都市를 敎化할 수 있는가? 無에서 一에 至하기
는 一에서 千에 至하기 보다 難하다 함과 같치 一에서
四에 至하기는 無에서 一에 至한 것 보다 易々하지 아니
할가? 諸君! 諸君의 前에는 許多한 障礙와 困難이 있
는 줄을 잘 안다. 아나 諸君의 壽命이 곳나의 것이며 諸
君의 아름이 곳나의 것이다. 이 壽命과 이 아름을 임시하
라 天使와 도위로 할 수 업고 華扁이와 도 藥을 칠 수가
업다. 오직 「하면 된다」는 法方이 잇을 뿐이다. 現下

朝鮮의 모든 問題가 다 「하면 된다」는 一言으로 解
決할 수 잇다. 經濟問題도 敎育問題도 敎會問題도 勿
論 ○○問題도…………….

諸君! 諸君은 信者에게 不能이 업다는 信仰을 維持
하고 이 「하면 된다」는 말로 標語를 삼아 百折不屈하
는 忍耐力과 勇氣로써 竭준히 나아가기를 切祝하노
라.

一九二七, 一一, 二七

